

◆ On-Maeul-Gyoyuk (Community Development Education) and Micro library

## 온마을 教育에 있어서의 마을文庫의 役割

徐 明 源

(서울大學校師範大學長)

### I. 教育의 變遷

教育의 門戶는 小數 特權層의 子孫에게만 開放되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實生活와는 그다지 關係없는 것을 배우는 것을 그 特徵으로 했었으며, 象牙塔이란 것을 자랑으로 생각해 왔던 것이다.

그러다가 民權伸張의 一環으로 教育의 機會均等を 부르짖게 되었으나, 배우는 內容은 亦是 實生活와 關係없는 것을 배웠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空理空論에 陶醉하는 弊端을 免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教育이 特權層만의 장식품이 아니라, 實際生活와 直結되는 知識과 技術의 習得이라 생각하게 되자 教育이 반드시 教室內에서만 이루어지는 性格의 것이 아니라, 오히려 地域社會 全體를 教室 또는 研究所로 擴大해서 생각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다 實際的이라는 것을 認識하게 되었다.

옛날에는 教育이란 아는 스승이 모르는 弟子에게 知識을 傳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教師의 役割이 매우 強했지만, 現代社會에서는 教師 以外에도 메스몰을 爲始해서 여러 가지 方案으로 지식이나 技術을 傳授할 수 있게 되어가고 있어 教育을 새로운 角度에서 檢討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學校教育에 못지 않게 社會教育이 重要視되게 되어가고 있다. 學校에서 아무리 善良한 教育을 한다 해도, 實社會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고 듣고 經驗하는 것으로 보다 強力하게 影響을 받고 있는 靑少年들은 不良化하기 마련이다. 온 地域社會 즉, 온마을이 教育에 關心을 갖지 않는 限 올바른 教育 効果는 바라지 못하는 理由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 II. 學校外教育의 必要性

教育의 機會가 擴大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教育의 惠澤을 받지 못하고 있는 靑少年의 數가 매우 많다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現實이다. 특히 農漁村에 不偶한 靑년이 많은 것은 後進社會의 特徵이기도 하다. 勿論 都市의 貧民層에도 不幸한 者들이 적지 않은 것도 輕視할 수 없는 現實이다. 우리 나라는 아직도 農

村人口의 比例가 많고 보니, 學校外教育의 對象을 自然部落의 靑少年들 중에서 찾는 것은 當然한 일이라 하겠다. 義務教育制度가 實施된지 이미 오래이지만, 憲法에 保障된 無償義務教育의 理想을 實現하기에는 너무도 現實은 慘酷한 것을 否認할 수 없다.

또 設或 國民學校를 卒業했다손 치더라도 中學進學의 野望이 좌절되자 自暴自棄하는 靑少年도 적지 않다. 劣等感에 사로잡혀 人生을 悲觀하고 運命을 저주하며, 나아가서는 社會에 不滿을 품고 不平客이 되며 家業에 專心할 勇氣를 잃고 막연한 希望을 가지고 都市로 進出하게 되니, 離農現狀이 날로 甚해져서 農村에는 人力이 不足하고 都市에는 失業者群이 거리에서 방황하게 된다. 이와 같은 不健全한 現狀을 防止하기 위해서도 學校教育 以外의 배움의 길이 提供되어야 한다. 無爲의 時間이 많으면 많을수록 타락할 危險性이 많은 것이지만, 農村에서 노름이 盛行하는 것도 健全하게 時間을 보낼 方途가 없는데서 오는 弊習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正規教育을 남부럽지 않게 받은 사람이라도 卒業과 同時에 배움을 繼續하지 않는다면 바로 落伍者가 될 것이다. 校外教育은 결코 不備한 靑少年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必要한 것을 銘心하여야 한다. 卒業式과 더불어 書籍과의 接觸을 끊는 것은 매우 그릇된 것이며, 英語로는 卒業式을 Commencement라고 하지만, 그 뜻은 「始作」이라고 하니, 매우 適切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 III. 온마을 教育의 意義

教育은 教師만이 擔當하는 것이 아니라 家庭, 學校, 地域社會의 人的, 物的, 文化的 環境 全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地域社會를 큰 教室로 보아야 하고, 生생한 研究室로 생각하는 것이 近者의 傾向이다. 教科中心教育에서는 主知教育에 力點을 두었기 때문에 兒童의 能力, 必要, 興味를 無視했던 것이다. 兒童中心教育은 心理學의 知識을 빌려 個人差를 尊重하고, 適性을 많이 考慮했으나, 兒童이 屬해 있는 地域社會가 얼마나 重한가를 充分히 理解 못 했기 때문에 相當한 誤

謬를 犯한 것도 또한 事實이다.

個人的 尊嚴性도 重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個人은 그가 屬해있는 社會의 一員이기에 많은 制約을 받아야 하며, 個人的 權利와 아울러, 市民으로서의 責任이 있음을 否認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生活中心教育이 擡頭되게 된 것이며, 地域社會가 當面하고 있는 問題를 認識하고 解決하는 것이 教育에 있어서의 매우 重大한 位置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며, 象牙塔式的 教科中心教育에서는 자칫하면 抽象的인 理論에만 그치기 쉽기 때문에 學生들이 興味를 잃게 되지만, 生活中心教育에서는 周圍에서 벌어지고 있는 生생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뜻이 있고, 生活와 遊離되지 않은 教育이 可能한 것이다.

生活中心教育에서는 地域社會全體를 教育場으로 보기 때문에 免許證을 가진 교사만이 敎師가 아니고, 教科書만이 教材가 될수 없으며, 試驗問題만이 問題가 아니고, 自身들의 周圍에서 問題를 느끼고 또 解決해야만 하는 것이다. 一生 가보지도 못한 먼 나라의 古跡에 대해서 詳細한 知識을 갖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내 고장의 過히 紹介되지도 않은, 또는 잃어버려져가는 文化財에 關心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산 教育을 통해서 生活이 改善되고, 信仰心 愛國心이 不知不識間에 涵養되는 것이다. 그릇된 劣等意識과 依他主義를 拂拭하고, 自敬自愛하며 自主性이 강한 民主市民의 養成도 이러한 教育을 통해서 可能함을 생각할 때 은마을 教育의 重要性을 力說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IV. 「農村文庫」運動의 失策

解放當時 우리나라의 文盲率은 日帝植民地教育政策 즉, 愚民政策의 德澤으로 20%을 훨씬 上廻하는 形便이었으나 李承晩大統領은 國家威信을 생각하여 7%라고 海外에는 發表했었다. 어느 統計에 의하면 1960年 즉, 解放된지 15년이 經過한 해에도 22% 程度이었다.

日帝下에서도 學從들이 放學期間을 利用하여, 文盲退治運動을 일으키어, 相當한 啓蒙을 했었다. 解放後는 「成人教育」의 必要性을 切實히 느끼어 政府에서도 힘을 많이 썼으나, 그 實은 文盲退治에 지나지 않았다. (成人教育은 결코 文盲退治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文字그대로 成人들의 繼續的 向上이나 趣味를 위한 보다 高次的인 教育을 말한다) 왜냐하면 國文도 解得하지 못한 文盲者에게는 어떠한 種類의 成人教育도 事實上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어느 程度 文盲率이 줄어들자, 成人教育의 一環으로 「農村文庫 運動」이 始作되었다. 最低生活도 못하는 農漁村의 貧民들이 書籍을 손에 넣기란 거이 期待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都市人들의 도움을 받아 農村에

「冊보내기運動」이 展開되었다. 休紙나 弊物로 버리기 쉬운 書籍이나 雜誌를 不偶한 農漁村 同胞에게 喜捨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運動에는 여러가지 隘路가 있었던 것이다.

첫째, 農民들은 배워야 할 터이지만 배워야 하겠다는 自發的 意慾이 없었다. 教育의 效果는 學習者의 能動的 態度가 없는 경우는 크게 期待하기 어려운 것이다. 他律的으로 讀書를 強要當한 農民들은 오히려 반발심이 생겼고, 劣等感을 더욱 甚하게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둘째, 都市에서 보내준 書籍이나 雜誌를 檢討해 보면, 農民들의 知識水準에 넘치는 것이 많았고, 그들이 必要로 하는 實用的인 內容의 것이 아니었고, 都市生活 또는 富裕層에나 關係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도움은 커녕 오히려 해로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保守的인 農村文化와는 距離가 먼 戰後派 小說은 良風美俗을 그릇될 憂慮가 있다고 생각하여 農村 有志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으며 호화로운 高級洋屋住宅의 모습은 사치風潮와 離農傾向을 助張시켰던 것이다.

셋째, 救護物資를 받은 者의 心情은 고마우면서도 無視當한 느낌을 갖게 되는 法이다. 解放以後 韓民族이 友邦 先進國 特別히 美國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나 많은 救護物資中에는 우리의 民族的 自尊心을 傷害할 程度로 衾마와 비슷한 衣服이 있었던 것도 事實이었다. 이럴 경우에 느낀 心情을 農漁村民들은 農村文庫運動에서 느꼈던 것이다. 表紙도 없고, 군데 군데 찢어진 雜誌를 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의 傷處는 컸던 것이다. 人間 待接을 받지 못한데서 오는 不快感을 어찌할 수 없었다.

네째, 農村文庫用으로 蒐集된 圖書도 비록 中古圖書이지만, 그 數量은 결코 적지 않았다. 都市의 各級學校를 통해서 거의 強制的으로 蒐集된 까닭에 책들은 불품 없고 그 卷數는 無限히 많았지만, 果然 그 中の 몇 %가 農村에서 기다리고 있는 배움에 굶주린 손에 들어갔는지도 알 수 없다. 쓸만한 冊들은 途中에서 適當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하니 寒心스러운 일이라 하니할 수 없다.

다섯째, 官에서 事務的으로 配布된 책을 農村靑少年들이 自發的으로 읽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여기에는 亦是 親切한 지도자가 있어 그들을 刺戟시키고, 북돋아주고 끌고 나가는 손이 必要한 것이다. 農村文庫에서 이러한 點에도 虛點이 있었다고 본다.

#### V. 「마을文庫」의 새로운 戰略

위에서 본 바와 같이 過去 農村文庫運動은 여러가지 弱點이 있었다. 말하자면 官製讀書運動이고, 他律的 學

習形態이었다. 따라서 官의 뒷받침이 없다면 사라지기 마련이고 讀書習性의 內面化는 不可能했던 것이다.

農村文庫運動의 前轍을 밟지 않고 새로운 讀書運動을 일으킨 것이 「마을文庫」運動이며, 嚴大燮總長의 創意性에 의해서 農村文庫의 虛點이 메워져 나갔던 것이다. 他律的인 讀書運動에서 自律的인 것으로, 依他的인 것에서 自立的인 것으로, 非組織的인 것에서 組織的인 것으로, 非實用的인 것에서 實用的인 것으로, 基本方向과 方法의 一大變換이 있었던 것이다. 마을文庫가 오늘 날과 같이 短時日內에 한 個人의 私設文庫로 始作한 것이 全國의 規模로 發展하게된 裏面에는 創案者의 個人的인 努力에 起因하는 바가 크다고도 하겠으나 마을文庫運動의 基本戰略이 心理學的으로나 社會學的으로 賢明하고 健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마을文庫가 自然部落(마을)을 單位로 한 것은 韓國 實情에 맞는 賢明한 政略이었다. 마을은 共同生活의 單位이어서 共存共榮의 出發點이기도 하다. 相扶相助해은 傳統的 社會集團의 最小單位이다. 이웃도 모르고 사는 大都市의 生活과는 달리, 온 마을 사람들이 서로 다 알고 도와가며 사는 까닭에 保守的인 面이 있어 發展에 뒤지기도 쉽지만, 서로 믿고 依持하는 까닭에 새로운 움직임이 있으면 그 效果를 보기도 쉬운 小集團이다.

마을文庫에서는 自助精神을 고취하기 위해서 寄附받은 書籍이 아니라, 그들에게 必要한 책을 그들의 힘으로 購入한다는 데에 妙味가 있다고 본다. 無償援助를 받은 것이 國家發展에 別로 도움이 안되듯이 農村文庫와 같이 거저 얻어 볼 수 있는 도서에 대한 態도와 그들이 代價를 치루고 구입한 도서에 대한 態도와는 相當히 距離가 있을 것이다. 거지根性을 克服하기 위해서도 좋다고 본다.

마을文庫가 寄與한 가장 큰 功은 讀書習性을 育成했다는 데에 있을 것이다. 冊과 親할 수 있는 讀書人口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偉大한 事業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近者 매스컴이 發達됨에 따라 大學生들도 힘들게 讀書하느니보다 簡便한 方法으로 最少限의 努力으로 最大限의 效果를 노릴려고 하는 時代的 風潮가 일어나고 있어 輕薄한 인테리들이 多數 輩出되고 있어 識者間에는 크게 문제가 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生業에 시달리면서 晝耕夜讀하는 가혹한 農村靑少年들이 늘어간다는 것은 世界에 자랑할만한 일이다.

### VI. 온마을 教育의 必要性

祖國의 近代化 課業이 着着 進行되고 이제는 中進國으로서의 체모를 갖추게 된 우리나라이지만 아직도 農業立國의 태두리를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農村의 發展 없이 工業化가 不可能한 것이 事實이고 보면

農村의 健全한 發展이야말로 國家發展에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여야 옳을 것이다. 農民의 購買力이 增進되지 않고서는 工業生産品의 販路가 없을 것이며 온 겨레의 食糧을 擔當하기 위해서 農村發展이 必要할 뿐만 아니라 工業生産品의 消費者로서의 農民의 經濟力이 必要한 것이다.

近代化는 人口의 都市集中 現狀을 招來하는 것이지만 지나치게 肥大해지는 都市化는 國家全體를 위해서나 都市의 健全한 發展에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니며 서울은 이미 公害가甚해서 市民들의 健康을 威脅하고 있다. 政府에서 人口의 分散策을 꾀하는 것도 이러한 理由에서이나 離農現狀은 날로 늘어가고 있어 國家將來를 위해서 크게 憂慮되는 바이다.

온마을教育은 이러한 不健全한 傾向을 是正하기 위해서도 絕對的으로 必要한 것이다. 先進國家의 大工業地帶 住民들은 所謂 「組織 안에서 사는 人間」(The Organization Man)으로 化하여 큰 機械의 한 날 톱니바퀴의 役割 밖에 못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身體健康은 勿論 精神健康을 甚히 害치고 있어 精神病者가 날로 늘어가고 있고 各種 犯罪가 橫行하고 群衆속에 살면서도 疎外感, 孤獨感을 느끼고 사는 不幸한 사람들이 激增함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將來에는 이런 不幸한 일이 없으리라고 壯談하기는 어렵다.

民主主義思想이 들어오며 따라 民權의 主張이 強해지는 것은 좋은 現狀이나, 權利만 主張하고 義務를 소홀히 하는 것은 결코 民主市民의 生活方途가 아니다. 모든 것을 國家에 要求한다 해도 美國같은 豊裕한 나라에서도 聯邦政府가 全部를 責任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故케네디大統領도 그 就任辭에서 「나라가 해줄 것을 求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各自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합시다」라고 외쳤던 것이다. 하나님도 自助者만을 救援한다고 하거니와 우리 마을을 우리가 發展시키지 않고, 政府나 어느 都市人들이 와서 도와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결코 좋은 生活態度는 아니다. 우리들이 할 일을 다해도 어려움이 있을 때만이 他者도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을 銘心해야 할 것이다.

우리마을의 문제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우리만이 解決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農村에는 人的 資源도 없고 物的 資源도 없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의 天賦의 素質은 都市人보다 못할 理가 萬無하고, 啓發하지 않는 데서 오는 差異가 있을 뿐이다. 우리의 逆境을 克服해가며 배우고 또 배우면 남부럽지 않게 내 고장에서 얼마든지 幸福하고 愉快하게 살 수 있을 것이며 한두 사람의 指導로 面目一新한 地域社會의 發展例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後進社會에서는 敬老思想과 같은 좋은 點이 많은 同時에 舊世代의 保守性 때문에 農村發展이 저해되는 것도 또한 事實이다. 特히 科學知識의 缺乏으로 迷信이 橫行하고 形式主義에 호르기 쉬운 弱點을 젊은 世代들이 改革해 나가야 한다. 옛 生活方式, 옛 價値觀을 버리기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世代間에 갈등이 생기는 것도 當然한 일이다. 良風美俗은 傳授해야 하지만 버릴 것은 果敢히 버려야 할 것이다. 勿論善惡의 基準을 세우기 부더가 문제이지만, 健全한 常識으로 判斷할 수 밖에 道理가 없다. 健全한 常識은 여러가지 方法로 얻을지만 讀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을 文庫의 役割은 다시 한번 크게 문제되는 것이다.

### VII. 마을文庫 圖書政策

마을文庫의 도서는 讀者들에게 맞는 것이어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들의 學力, 必要, 興味를 參酌하여야 할 것이다. 어려운 財力으로 구입하는 도서는 결코 豪華한 住宅의 應接室을 장식하기 위해서 購入하는 全集式 藏書와는 전혀 目的이 다르다. 讀書의 目的은 여러가지 있겠으나 그 중에서 無視 못할 것은 娛樂를 위한 것이다. 아직 거기까지 손을 뻗을 여유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農村青少年들의 單調로운 生活에 活力素를 提供한다는 것은 매우 重要한 것이다. 都市人을 相對로 한 娛樂讀物이 아니라 어메카지나 農村을 舞臺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書籍이 그다지 많지 않을지도 모르겠으나 없으면 特定人에게 부탁해서 마을 文庫用으로 著述하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미 古來 文庫의 讀者數가 이러한 試圖를 해 볼 程度로 膨脹되었다고 본다.

農漁村 生活이 乾燥하기 쉬우니 運動(그것도 團體運動)을 適當히 加味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서도 이런 方面의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마을文庫 會員들의 成功談은 매우 効果의 일 것이다. 讀者들에게 勇氣를 북돋아 줄 것이고, 筆者 自身에게는 自敬自愛心을 涵養시켜 줄 것이다. 青少年들의 精力을 建設의 方面으로 誘導하는 것이 賢明하다지만 農漁村 青少年들에게 프라이드를 길러 줄 必要가 있을 것이다.

制限된 豫算으로 갖추고 싶은 書籍을 다 갖추는 것은 없으니 이미 마을文庫에서도 始作하고 있지만 移動文庫事業이 擴張되었으면 더욱 좋겠다.

地域社會學校를 志向하는 學校에서는 圖書館의 公開를 研究해 볼 必要가 있다. 學校의 使命이 正規學生의 지도로만 그친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勿論 여기에는 隘路가 많지만 뜻이 있으면 方法은 있는 法이다. 貧困한 우리나라에서 얼마되지 않는 圖書를 少數人을 위해서 「死藏」해 둔다는 것은 매우 사치스러운 일이라고 생

각된다. 그렇다고 無秩序하게 公開해서는 안될 것이다. 여기에 圖書行政의 能率化, 科學化가 必要한 것이다.

### VIII. 結 語

純朴한 農民들이 팔자타령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자기들 스스로의 運命을 開拓할 때이다. 그러자면 먼저 알아야만 하겠다.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이다. 알자면 책이 必要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렇다고 읽어야 理解 못하는 책은 所用이 없으며 장식으로서의 高價本이 아니라 우리 生活과 直結되는 책이 아쉬운 것이다. 이와 같은 時代的 要求에 呼應할 수 있었던 것이 마을文庫의 誕生이었다.

마을文庫는 財政的인 餘裕가 있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農村을 充分히 理解하고 새 生命을 불어넣는 데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洞察한 合理的인 方案으로 오늘 날의 全世界에 자랑할 만한 韓國 特有의 社會教育 制度로 까지 發展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바이다.

우리나라는自古로 人文崇尙의 傳統下에 教育은 立身揚名의 手段으로 생각되어 왔기 때문에 은 國民은 힘에 겨운 教育熱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教育亡國」의 소리까지 있다. 教育은 잘 살기 위한 한 手段이겠지만 近者 周圍에서 벌어지는 形便을 살펴보면 教育은 手段이 아니라 目的으로 變하고 말았다. 教育담지 못한 教育을 받기위해서 都市集中의 現象이 날로 甚해져서 離農現象을 부채질 하고 있다.

教育이 國家發展에 必要한 것은 近者 經濟學者들에 의해서 力說되고 있지만 生活과 遊離된 從來式의 教育을 止揚하지 않고서는 오히려 害가 될 憂慮조차 있을 때 鄉土學校 또는 地域社會學校運動이 일어난 것은 참으로 多幸한 일이다.

은마을教育은 은마을을 敎場으로 생각하고 은마을 人士들이 動員되어야 하지만, 여기에도 主導의 人物이 必要한 것이다. 마을文庫 會員들이 이 자랑스러운 責任을 담당해야만 하기 때문에 마을文庫는 지금까지의 小成에 滿足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公共圖書館制度의 確立이 切實히 要求되며, 坊坊曲曲에 所在해 있는 國民學校의 圖書館이 이 役割을 代行할 義務도 있다고 본다. 正規教育을 正常化하기에도 힘이 겨운 國民學校에 이와 같은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非現實的인 要求인듯 하나, 教育의 眞正한 使命을 冷靜히 檢討해보면 이 義務를 外面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미 여러 고장에서 成功한 例가 相當히 많이 있으니 勇氣를 내볼 만하다.

讀書習性이 弱해지기 쉬운 時代에 사는 우리 國民들에게 讀書意慾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生活觀, 새로운 生活技術을 習得케 하는데에 큰 役軍이 되기를 期待하면서…….